

가을비가 내리면 스웨터와 카디건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면 가을이 온다는 생각에 불어오는 바람 속에도 가을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9월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여름 기온이기에 가을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가을이 오면 땀 투성이었던 여름의 불쾌함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런던이나 파리에서의 가을은 쾌적한 여름을 지나 별로 좋지 않은 겨울을 예고하는 기간으로 한달 정도로 짧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가을은 길다. 가을이나 여름의 기간은 비슷하다.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한차례 가을비가 내리고 나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천고마비의 맑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가을을 보내면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점점 겨울로 이행하여 간다. 이러한 점진적인 추이변화에 맞추어 반소매에서 긴소매, 베스트, 카디건, 스웨터 등으로 옷의 종류도 계절과 더불어 순서대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서 옷감도 또한 변하여 간다. 그러나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패션의 변화는 한방에 바뀌는 것이다. 나른한 기분의 여름 생활로부터 청명한 가을로 전환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가을이 들어서면서 옷의 디자인과 디스플레이는 여름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거무스레한 색이기도 하고 긴소매라든가 긴 옷자락으로 나타낸다. 상쾌한 가을이 되는 것은 9월부터일 것이다.

1. 카디건(Cardigan)

털실로 짠 앞이 트인 스웨터, 크림전쟁 때 영국의 카디건 백작이 의복을 고안해 애용한 데서 이 명칭이 생겼다. 칼라 없이 앞이 트여서 단추로 채워 여미게 되었으며, 목둘레는 V자형 또는 둥근 형이다. 소매는 긴소매와 짧은 소매가 있으며, 입고 벗기에 편해 기능적이다. 블라우스나 셔츠, 폴오버 위에 덧입어 보온하며, 출근복, 가정복, 외출복으로 널리 쓰인다. 남자용은 가정복, 레저용으로 주로

쓰이고, 제직물과 편직물을 조합해서 만든 것도 있다.

2. 스웨터(Sweater)

편물로 된 상의의 총칭이며,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착용한다. 어원은 스웨트(sweat : 땀흘리기)이며, 처음에는 운동복으로 입었으나, 1891년 아이비 리그의 축구 선수들이 땀받이로 입는 유니폼으로 사용하면서 일반화되었다. 신축성이 좋아 활동하기 자유로우며, 따뜻하고 가벼우며 손질도 까다롭지 않아 운동복은 물론이고 일상용, 가정용으로 널리 쓰인다. 여성복으로 스웨터를 유행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디자이너 G. 샤넬이다. 평상복인 스웨터가 통근, 통학용으로 남녀 구별 없이 통용되었으며, 털실에 의한 손뜨기와 간단한 수직기 편물이 가정에서도 많이 짜여졌다.

3. 베스트(Vest)

앞이 트였으며 소매가 없고 몸에 맞도록 된 옷. 영국에서는 웨이스트 코트(waist coat)라고 한다. 베스트는 미국에서 쓰는 말로 소매가 없는 동의(胴衣, 몸통에 입는 옷) 곧 조끼를 말한다. 남자 베스트는 웨이스트 길이나 그보다 약간 긴 상의 안에 착용하고, 여성복에서는 상의 안에 받쳐입기도 하지만 겉옷으로서 입는 보디스(칼라와 소매가 없는 옷)와 같은 것이다. 17세기 중엽 영국 왕 찰스 2세의 동의에서 시작되어, 18세기에는 앞을 튼 쥐스토코르(justaucorps), 즉 상체부에 꼭 맞는 긴 상의의 등장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화려한 수를 놓아 멋을 냈다. 프랑스어 질레(gilet)가 이것이다. 그 후 프록코트나 모닝코트를 거쳐 현재의 신사복형으로 변하는 동안에 옷이 세련되고 간편해졌다.